

KERI Brief

10대 수출품목 의존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conbyun@keri.org)

2015년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대비 8.0% 감소한 5,26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특히,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감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어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UN Comtrade 자료를 분석한 결과, SITC 2단위 기준 우리나라 10대 수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75.7%로 미국(55.4%), 중국(67.8%), 일본(6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08년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과 동일한 품목이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8년 48.3%에서

현재 45.6%까지 하락하여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은 상대적으로 점차 수요가 감소하는 품목일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2.6%에서 2014년 31.0%로 8.4%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 및 전체 수출은 과거에 가격변동에 보다 많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출품목의 경기변동이나 단가변동이 우리 경제 전체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수출품목의 개발이 시급하다.

1. 최근 우리나라 수출 추이

□ 2015년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대비 8.0% 감소한 5,268억 달러 기록

- 2015년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경기둔화, 유가하락으로 인한 국제교역 축소로 8.0% 감소

○ 2015년(1~8월 기준) 세계 교역은 수출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한 10조 8,305억 달러를 기록

○ 세계 30대 수출국 중 스위스(16위, 18.5%)와 베트남(27위, 16.5%)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수출은 1~8월 기준 11.3% 감소

○ 우리나라 수출은 2015년 1분기 3.0% 감소를 시작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4분기에는 2014년 동기 대비 12.0% 감소

- 세계 경기침체 외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생산구조 변화도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

○ 가공무역을 억제하고 자급률을 제고하는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로 대중 수출도 2014년 1,453억 달러에서 2015년 1,371억 달러로 82억 달러(-5.0%) 감소하여 전체 수출액 감소(459억 달러)의 18% 차지

○ 그 외, 해외생산 확대 등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수출 위축 효과도 발생

□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감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어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국제비교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13대 품목¹⁾수출은 전년 대비 9.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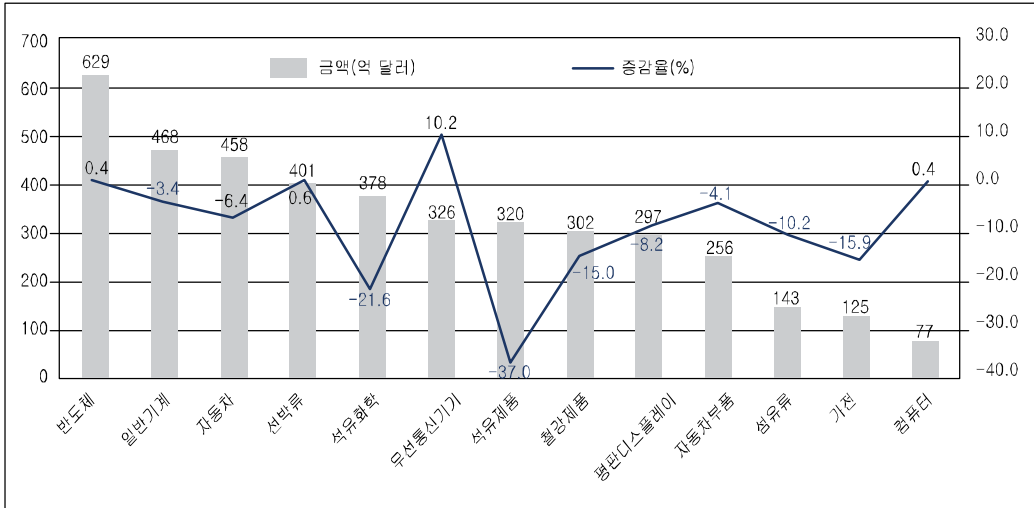
1)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품목 분류체계(MTI)를 기준으로 13대 수출품목을 선정한다. 13대 수출 품목은 MTI 특정 수준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 상황을 반영하여 1단위부터 4단위까지 다양한 품목들을 포함하여 정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13대 수출품목에는 선박(746), 무선통신기기(812), 일반기계(71, 72, 75, 79), 석유화학(21), 철강제품(61), 반도체(831), 자동차(741), 석유제품(133), 평판디스플레이(8361), 섬유류(4), 가전(82), 자동차부품(742) 및 컴퓨터(813)가 포함된다.

〈표 1〉 최근 우리나라 수출 추이

시점		수출금액(억 달러)	증감율(%)
2014	1분기	1,375	1.6
	2분기	1,457	3.2
	3분기	1,418	3.6
	4분기	1,477	0.9
	연간	5,727	2.3
2015	1분기	1,334	-3.0
	2분기	1,351	-7.3
	3분기	1,282	-9.5
	4분기	1,300	-12.0
	연간	5,268	-8.0

자료: www.kita.net

〈그림 1〉 2015년 13대 품목 수출액 및 증감률



자료: www.kita.net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13대 품목 수출은 2015년 4,17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5,268억 달러 대비 9.4% 감소
- 13대 품목 중 무선통신기기(10.2%), 선박류(0.6%), 반도체(0.4%) 및 컴퓨터(0.4%)를 제외한 9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
- 유가하락에 의한 단가하락으로 석유화학(-21.6%) 및 석유제품(-37.0%) 수출 감소가 극심
- 그 외에도 상대적으로 유가하락의 영향을 덜 받는 가전(-15.9%), 철강제품(-15.0%), 섬유류(-10.2%) 및 평판디스플레이(-8.2%) 등의 수출 감소도 심각한 상황
- 일부에서는 주요 수출 품목의 비중이 과도히 증가하면서 경제 전체의 수출이 일부 품목 경기에 민감히 반응하게 되었다는 지적
- 2015년 기준 13대 주요 수출품목의 총 수출액은 4,179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79.3%

○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적절한 의존도를 경제학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나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존도 수준을 파악할 필요는 있음.

□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금액 하락 정도가 심각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변동성을 파악할 필요

- 2015년 우리나라 수출은 물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금액은 감소
- 2015년 전체 수출 물량은 전년도 대비 1.9% 증가하였으나 총금액은 8.0% 감소하여 단가 하락이 심했던 것으로 추정
- 13대 수출품목의 경우 물량은 5.9% 증가하였지만 총금액은 무려 9.4% 감소하여 단가하락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추정
- 중국의 경우 2015년 3분기까지 수출물량이 0.9%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금액은 1.7% 감소하

는데 그쳐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가하락이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변동성을 파악할 필요

-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중 상대적으로 단가하락(또는 단가변동)이 심한 품목의 비중이 과도히 증가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

2. 한·미·중·일 10대 수출품목 비중 비교

□ SITC 2단위를 기준으로 각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적용하는 주요 수출품목 선정 방식을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13대 주요 수출품목은 우리나라 수출구조를 반영하여 MTI 1단위부터 4단위의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13대 수출품목에는 선박(746), 무선통신기기(812), 일반기계(71, 72, 75, 79), 석유화학(21), 철강제품(61), 반도체(831), 자동차(741), 석유제품(133), 평판디스플레이(8361), 섬유류(4), 가전(82), 자동차부품(742) 및 컴퓨터(813)가 포함

- 그러나 우리나라 여건을 반영하여 13대 수출품목을 선정한 기준을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이며 동일한 방식을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

- 동일한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수출품목 의존도를 비교

- 본 보고서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UN이 지정한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2단위를 기준으로 각국의 10대 수

출품목을 선정

- 자료의 가용성을 기준으로 2004~2014년 사이 4개국 주요 수출품목 비교

□ 현재 10대 수출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특정 품목 시장의 경기변동이나 단가변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큼

- 2014년 기준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7%

- SITC 기준 2014년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의 총 수출액은 4,339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7%

- 전기기계장치와 기기가 977억 달러를 기록해 최대 비중(17.0%)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동차(12.7%), 석유 및 석유제품(9.2%)

- 2014년 기준 미국의 10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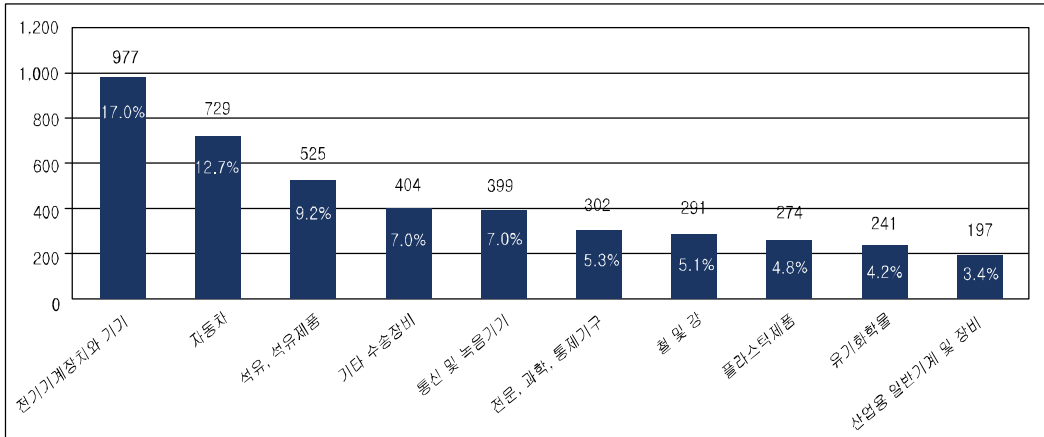
- SITC 2단위 기준 미국의 2014년 10대 수출품목의 총 수출금액은 8,975억 달러로 전체 수출 1조 6,197억 달러의 55.4%

- 미국의 10대 수출품목은 기타 특수거래 및 재화(1,563억 달러, 9.7%), 자동차(1,319억 달러, 8.1%), 석유 및 석유제품(1,303억 달러, 8.0%), 전기기계장치(1,133억 달러, 7.0%) 등의 순

- 한국과 달리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의 비중이 10% 미만

〈그림 2〉 SITC 기준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2014년)

(단위: 억 달러, %)



자료: UN Comtrade

〈표 2〉 한국·미국·중국·일본 주요 수출품목 비중 (2014년)

(단위: %)

	10대 수출품	5대 수출품	3대 수출품
한국	75.7	52.5	38.9
미국	55.4	37.7	25.8
중국	67.8	49.0	33.5
일본	69.8	50.0	39.1

자료: UN Comtrade

- 2014년 기준 중국의 10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8%

- SITC 2단위 기준 중국의 2014년 10대 수출품목의 총 수출금액은 1조 5,876억 달러로 전체 수출 2조 3,423억 달러의 67.8%
- 중국의 10대 수출품목은 전기기계장치(2,819억 달러, 12.0%), 통신녹음기기(2,763억 달러, 11.8%),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처리장치(2,257억 달러, 9.6%), 의류(1,868억 달러, 8.0%) 등의 순
- 미국보다는 높지만 비중이 큰 품목의 비중이 12.0%로 한국(전기기계장치, 17.0%)에 비해 낮은 수준

- 2014년 기준 일본의 10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8%

- SITC 2단위 기준 일본의 2014년 10대 수출품목의 총 수출금액은 4,817억 달러로 전체 수출 6,902억 달러의 69.8%
- 일본의 10대 수출품목은 자동차(1,406억 달러, 20.0%), 전기기계장치(838억 달러, 12.1%), 특수 산업용기계(453억 달러, 6.6%) 등의 순
- 10대 수출품목 중 자동차 수출에 의존하는 정도(20.0%)가 상당히 높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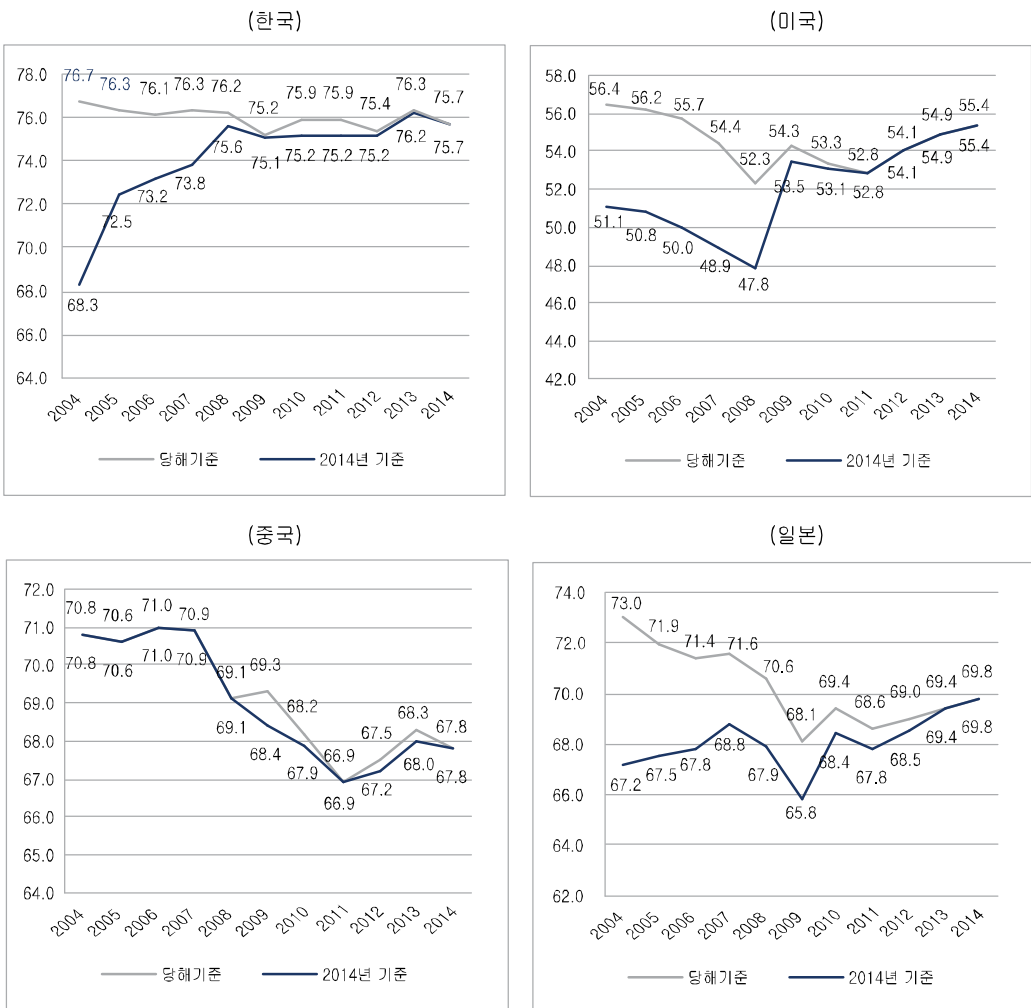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10대 수출품목 비중은 한·미·중·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

-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의 비중은 2014년 기준 75.7%로 미국(55.4%), 중국(67.8%), 일본(69.8%)에 비해 높은 수준
- 5대 수출품목 비중 역시 52.5%로 비교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

- 수출이 일부 특정 품목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주요 품목 시장의 경기변동이나 단가변동에 전체 수출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림 3〉 한국·미국·중국·일본 10대 수출품목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UN Comtrade

▣ 현재 10대 수출품목으로 더 이상 수출을 견인하기 어려울 가능성 증대

- 2014년 기준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이후 정체

- 2014년 우리나라 수출 10대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68.3%에서 2014년 75.7%로 10년 사이 7.4% 포인트 증가
- 그러나 실제로는 2008년 이후 75%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음

- 현재 10대 수출품목으로는 더 이상 수출을 견인하기 어려울 가능성 증가

-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 사이 10대 수출품목 중 2개 품목이 신규로 진입하여 10대 수출품목 구성에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하는 상황
 - * 미국: 2008년 이후 7.6% 포인트 증가
 - * 일본: 2009년 이후 4.0% 포인트 증가
 - * 중국: 2011년 이후 0.9% 포인트 증가
 - * 한국: 2008년 이후 0.1% 포인트 증가
- 반면, 한국의 경우 당해 연도 10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75%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10대 수출품목 비중의 한계는 75% 수준으로 추정되고 현재 10대 수출품목의 비중도 2008년 이후 75% 수준서 정체
- 또한, 전 세계 교역 중 현재 우리나라 10대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교역비중은 2008년 48.3%까지 증가한 이후 2014년 45.6%까지 하락세를 보여 세계 시장에서 현재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의 중요성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정도는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심한 상황

- * 한국: 48.3% → 45.6% (-2.7%p)
- * 미국: 51.9% → 49.7% (-2.2%p)
- * 중국: 39.6% → 40.5% (+0.9%p)
- * 일본: 37.9% → 37.0% (-0.9%p)

○ 현재의 10대 수출품목이 2008년 이후 이미 75% 수준에 도달한 점,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의 전 세계 교역 비중 하락 등을 감안하면 신규 수출품목을 발굴하기 이전에는 현재의 10대 수출품목으로 우리나라 수출증가세를 견인하는데 곧 한계가 올 것으로 보임.

3.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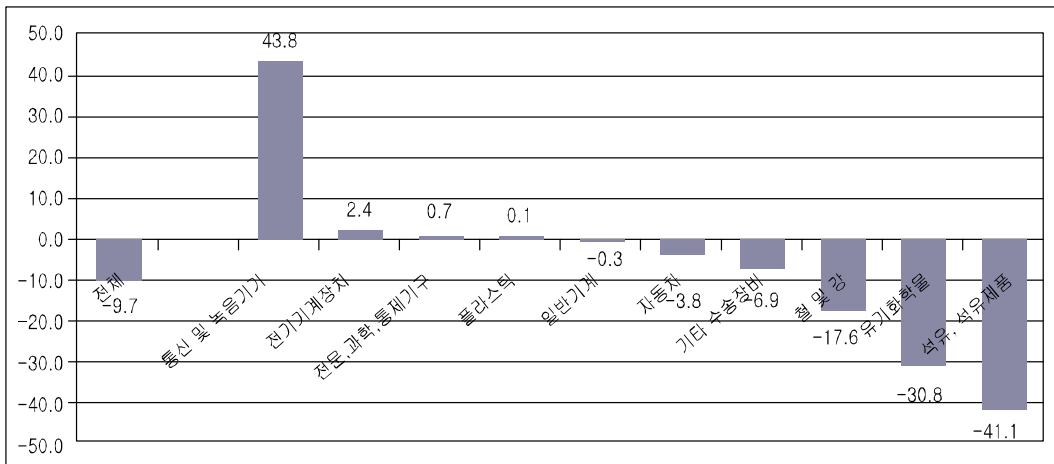
□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의 비중이 증가하여 우리나라 수출은 과거에 비해 가격변동성에 보다 많이 노출

- 2015년 SITC 2단위 기준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 중 6개의 가격이 하락
- 2004년 이후 SITC 2단위 기준 수출금액과 수출물량으로부터 수출단가를 계산한 결과, 2014~2015년 사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단가는 무려 9.7%나 하락하여 2009년 16.0% 하락 이후 최대
- SITC 2단위 기준 10대 수출품목 중 2015년에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6개
- 석유 및 석유제품(-41.1%), 유기화학물(-30.8%), 철 및 강(-17.6%), 기타 수송장비(-6.9%) 등이 단가하락을 주도

- 2004~2014년 사이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 2004~2014년 사이 단가의 변동성을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로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의 가격변동성은 모두 전체 수출품의 가격변동성(9.3%)보다 큼
- 특히, 석유 및 석유제품(30.5%), 전기기계장치(29.5%) 및 플라스틱(25.7%)의 변동성이 타 품목에 비해 월등히 변동성이 큼
-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2.6%에서 2014년 31.0%로 8.4% 포인트나 증가
- 따라서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 및 전체 수출은 과거에 비해 가격변동에 보다 많이 노출됨

〈그림 4〉 SITC 기준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 단가 변동(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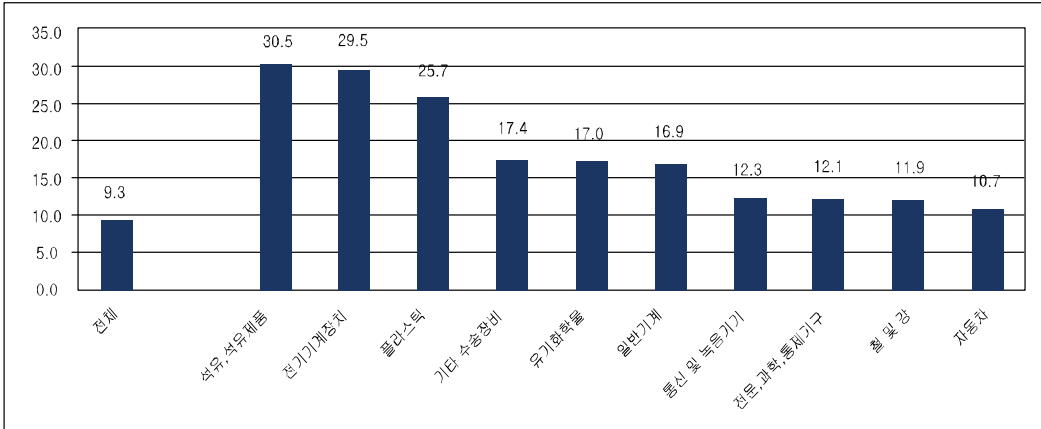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www.kita.net

〈그림 5〉 변동계수로 측정한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 단가 변동성(2004~2014년)

(단위: %)



자료: www.kita.net

주: 변동계수에 100을 곱한 숫자($(\sigma/\mu) \times 100$)로 변동성을 측정

4.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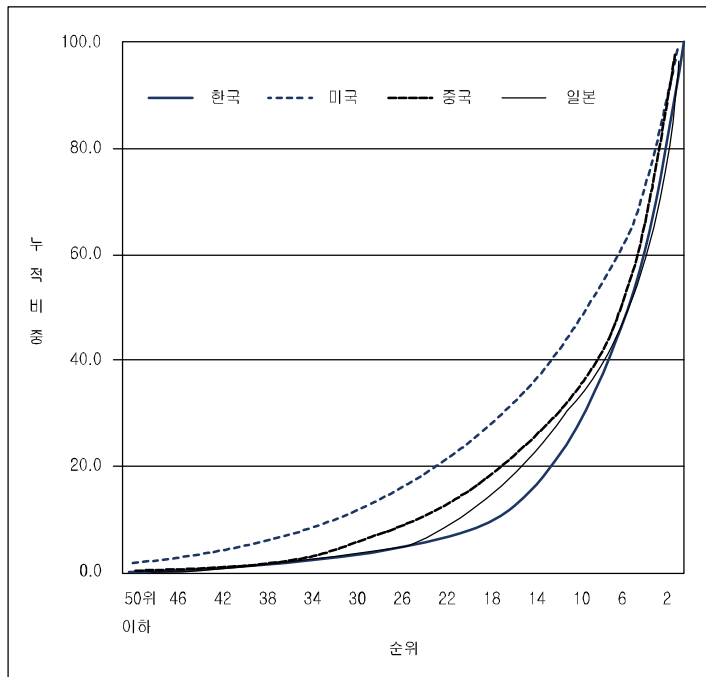
□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품 발굴이 시급**

- 우리나라 수출의 특정 품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수출품목 개발이 시급
-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의 비중은 2014년 기준 75.7%로 미국(55.4%), 중국(67.8%), 일본(69.8%)에 비해 높은 수준
- 또한,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전기기계장치와 기기의 비중은 17.0%로 미국(자동차, 8.1%)과 중국(전기기계장치, 12.0%)에 비해 높은 수준

- 전체 수출품목의 누적비중을 나타낸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및 일본에 비해 상위 품목에 의존하는 정도가 강하고 중하위 품목의 중요도가 낮은 상태
- 뿐만 아니라 석유 및 석유제품과 같이 가격변동성이 큰 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한 상태
- 주요 수출품목의 경기변동이나 단가변동이 전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새로운 수출품목의 개발을 통해 특정 품목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검토할 필요

<그림 6> 한미중일 50대 수출품목 누적 비중(2014년)

(단위: %)



자료: UN Comtrade

-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새로운 주력 수출품의 발굴이 시급

-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이후 정체
- 전 세계 교역 중 현재 우리나라 10대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교역비중은 2008년 48.3%에서 2014년 45.6%까지 하락세를 보여 세계 교역구조와 우리나라 수출구조 사이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 한편 지난 2008년 이후 사무용 기계 및 자동차용 처리장치가 10대 수출품목에서 제외되고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가 신규로 진입한 것 외에는 변화가 없음
- 점차 수요가 감소하는 현재의 10대 수출품목으로는 우리나라 수출증가세를 견인하는데 한계가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이 시급
- 따라서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6년 4월 14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